

어린이 눈높이 맞춰 재현한 화가들의 예술세계

연령별로 형식과 내용 차별화 해



지금까지 어린이책에서 보기 힘들었던 예술가 전기물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류를 이루는 것은 유명화가의 삶과 작품세계를 소개한 책이다. 문화적 욕구가 커지는 사회추세를 등에 업고, 화가의 삶과 작품을 다룬 책들은 계속 발간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예술가의 전기물은 주로 성인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다. 아마도 어린이는 예술 세계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요즘 서점가에는 예술가의 생애를 다룬 어린이책들이 많이 나와 눈길을 끈다. 그 중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은 단연 유명한 화가의 삶과 작품세계를 소개한 책이다.

화가의 작품사진 비중 높아진 어린이책

화가의 삶과 작품을 다룬 책들은 이전의 아동용 전기물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림과 그에 대한 해설 비중을 높여 작품감상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울퉁퉁 작품사진이 책 전체의 절반에서 삼분의 일 가량 차지한다. 이런 책들은 화가의 삶과 작품세계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적 효과와 아이들의 미적 감각을 키워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는다.

대상 연령별로 형식과 내용을 차별화한다는 점도 특징. 독자대상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화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설명이 상세해지고, 유아로 갈수록 설명보다는 '놀이를 통해 그림 접하기'에 초점을 맞춘다.

《천재화가 이중섭과 아이들》(강원희, 예림당)은 이중섭의 삶을 쉽고 자세하게 소개한 책이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전쟁의 와중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굴곡 많은 우리 현대사와 궤적을 같이한 그의 예술혼을 담았다.

이 책은 '어린이를 사랑한 이중섭'을 강조한다. 첫 아이를 병으로 일찍 잃어버리고, 가족과 헤어져 살았기에 그의 가족에는 더욱 사무쳤다. 이 책에는 그가 즐겨 그린 '아이들'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과 그의 대표적 소재인 '소'를 그린 작품 등 40여편이 소개됐다.

특히 이 책은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중섭의 사진들과 가족사진, 그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들은 물론 그의 방에 걸려 있던 시, 그가 평소에 잘 부르던 노래가사까지 실었다.

《나무가 되고 싶은 화가 박수근》(김현숙)은 도서출판 나무숲의 <어린이 미술관> 시리즈 첫 책이다. 일제시대에 태어나 가난 때문에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다 화가가 돼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고 51세로 생을 마감한 박수근의 삶과 그의 작품 30여편을 소개했다.

연령따라 다양한 형식 개발해

<어린이 미술관>이라는 시리즈 제목이 말해주듯, 이 책은 아이들에게 "그림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작품설명에 특별히 신경을 썼고, 부록으로 톱밥과 사포를 이용해 박수근 작품의 특징인 화강암 같은 재질감을 표현하는 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나무숲은 <신사임당> <김홍도>도 펴낼 예정이다.

5세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김홍도> (정하섭, 길벗어린이)는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

이를 통해 그림을 감상하도록 만든, '미적 체험 훈련'을 위한 전형적인 책이다.

김홍도의 생애를 그림과 함께 간단히 설명하고, 20여편의 작품을 같은 그림 찾기, 두 그림의 다른 부분 찾기, 그림 속 사물의 그림자 찾기, 조각그림 맞추기 등의 놀이를 통해 접하도록 꾸몄다. <내가 처음 만난 예술가> 시리즈 다섯번째로 이 책을 출간한 길벗어린이는 이미 <샤갈> <다빈치> <피카소> <조토> 등을 같은 형식으로 펴낸 바 있다.

화가의 삶과 작품을 다룬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아동문학평론가 조윌레씨는 "뚜렷한 업적을 남긴 화가들의 그림작품을 통해 예술에 대한 감성을 키워주려는 의도"라며, "예술과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향은 일반 동화책에서도 삽화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정은 기자